

주택내의 사회공간의 물리적 특성과 기능의 변천에 관한 연구*

Functional and Physical Changes of Social Lifespaces in Korean
Family Houses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주생활학과

교 수 윤 복 자

연구조교 박 경 난

연구조교 백 금 화

Dept. of Housing & Interior Design, Yonsei Univ.

Professor; Yoon, Bokcha

Research Assistant; Park, Kyungnan

Research Assistant; Paik, Kumhwa

〈목 차〉

I. 서론

II. 주택과 사회공간 특성

III. 사회공간의 물리적 특성 변화

IV. 사회공간의 실기능 변화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general characteristics of social lifespaces in Korean family houses and to investigate the changes in physical aspects and room functions of social lifespaces from Yi-dynasty to the present. The documentary research method was used for this study. Total of 972 out of 1,109 floor plans were analyzed for this study.

The major findings were that changes of social lifespaces from Yi-dynasty to the present have been affected by natural and socio-cultural environments. The changes in the physical aspects of social lifespaces have shown from one or two social lifespaces to various single-purpose social lifespaces such as living room, family room, drawing room, and study room. In the past, the central social lifespaces, Anbang

* 본 연구는 1991년도 연세대학교 학술연구 조성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

(women's quarter) was larger than the living room/Daechung(wooden floor) but the living room in the present has become a central social lifespaces and larger. The room function of Anbang has changed from multi-purpose space to private space. Living room/Daechung had used as a pathway rather than a social lifespaces in the past but the living room has played many functional roles of family social activities in the present. The kitchen has also begun to use as a social lifespace. This is a new symptom that kitchen and dining spaces will be included as a new social lifespaces.

I. 서 론

주거형태는 인간을 둘러 싸고 있는 여러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형성 변화되어 왔다. 따라서 각 생활문화권에 따라 그 형태와 공간의 구조 및 공간 사용방법 등에 있어서 상이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즉 그 공간에서 사는 사람은 그 사람들 방식으로 공간과 형태를 만들고 그 속에서 생활하는 것이다. 주택은 주거공간이라는 물리적 환경속에서 가족 구성원에 의하여 형성되는 생활양식과의 대응관계로 파악된다. 따라서 주택을 계획할 때에는 거주자들의 각종 요구가 반영된 생활의 장소로서 공간구성과 그들의 행위 사이의 일치성을 제고시키는 문제가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시 되고 있다.

개화기 이후 서양과 일본의 문물이 도입되면서 주거형태 및 평면 구성 등 물리적 요인의 변화와 함께 가치관의 변화 등 사회적, 심리적 요인의 작용에 의한 생활양식의 변화로 우리의 주거생활은 전통적 관습에서 급격히 변화해 왔다. 그러한 과정에서 서구 문화의 여러국면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우리의 주거생활은 고유문화와 외래문화간의 조화있는 융합을 통해 우리의 주거문화를 재창조하기 보다는 외래문화를 단순히 모방하는데 그쳤다. 그리하여 물리적 공간의 특성 변화와 생활의식의 변화는 실제의 생활양식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어, 실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생활 양식과 많은 갈등을 일으켜 왔다.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사회생활 및 주생활 욕구, 가치의 다변화로 인해 가족간의 대화나 사회 접촉이 부족하게 되어 이로 인해 야기되는 가정생활의 부조화가 심각하게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인간이

상호교류를 필요로 하는 욕구는 주택내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택은 가족, 친지, 이웃, 사회를 연결시키고 자녀들의 사회공간이 과거부터 변천해 온 과정과 현재의 당면한 문제를 분석하여 보다 원활하고 긴밀한 가족간의 유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교류를 보장시키고 우리의 생활양식에 적합한 공간계획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이후 현재까지 주택내의 사회공간이 각 시대의 자연적 환경, 정치·경제·기술 환경, 가족형태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속에서 어떻게 형성하여 왔나를 밝히며, 사회공간의 실구성, 위치, 규모 등의 물리적 공간에 대응한 주생활 행위에 따른 실기능의 변화를 규명하며 앞으로의 사회공간에 대한 사용욕구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예측해 보는데 목적을 둔다. 본 연구의 진행을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 1)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주택과 사회공간의 특성을 정리한다.
- 2) 사회공간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변화를 분석한다.
- 3) 사회공간의 실기능 변화추이를 파악한다.

1.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문헌연구방법을 채택하여 역사적 자료를 도서관 서베이 방법을 통해 내용분석을 한다. 이에 따라 조선시대에서 부터 현재까지 각 시대의 주택 및 사회공간과 관련되는 문헌적 자료와 평면도 등을 수집하여 내용분석에 이용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인 윤복자, 최형선(1989)과 윤복자(1990)의

연구에서 사용한 시대적 구분을 채택하여 시대를 구분한다. 우리나라에 외래문물이 들어 오면서 주택형태가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개화기, 일제시대, 해방후부터 1960년까지로 구분하고, 그 이후에는 10년 단위로 1960년대, 1970년, 1980년대로 나눈다. 평면도 분석을 위하여 총 1109개의 평면도를 수집하여 다른 아파트이지만 동일평면인 경우나 여러 문헌에서 중복된 평면의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시키고 분석한다. 조선시대에는 554개, 개화기에는 12개, 일제시대에는 49개, 해방후부터 1960년까지는 41개, 1960년대에는 123개, 1970년대에는 103개, 1980년대에는 93개로 총 972개 평면도를 분석한다.

2. 용어 정의

1) 사회공간

주택 내부에서 접객, 가족단란, 식사 등과 같은 사회적 행위가 일어나는 장소를 사회공간이라 명한다.

2) 주택계층

신분제도가 명확했던 조선시대에는 신분제도에 의한 사회계층을 주택계층으로 하고, 그 이후 시대에서는 면적과 방수에 따른 주택규모와 그 이외에 사용할 수 있는 사회계층 지표를 포함하여, 하류계층을 제외한 서민주택, 중류주택, 상류주택으로 주택계층을 분류한다.

3) 물리적 특성

물리적 특성이란 행태적 특성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서 본 연구에서 물리적 특성을 파악하는 근거는 실구성 형식, 거실/대청의 위치, 안방의 위치, 안방과 거리/대청의 규모 비교, 연결형태를 중심으로 파악한다.

4) 실기능

방에서 일어나는 주된 행위를 근거로 그 실의 기능이라고 간주하여 실기능으로 명명한다. 즉 수납실 용도를 제외한 생활행위가 일어나는 실명을 부여하면 침실, 욕실, 가족실, 접객실, 취사실, 가사실, 식사실 등의 7가지로 명칭을 가진 실기능이 구분된다.

3. 연구의 범위 및 한계점

본 연구를 위한 시대적 구분은 조선시대, 개화기, 일제시대, 해방후부터 1960년까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의 7단계로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로 시대의 한계를 제한한다. 단 조선시대는 자료의 한계에 의하여 조선후기로 한정한다.

역사적으로 보아 서울이 주거형태의 변모가 가장 먼저 나타났고 각 지방의 주택에도 영향을 주어왔다고 사료되어 조선시대를 제외한 다른시대에서는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한다.

문헌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학위논문과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문헌, 그리고 그 분야의 권위자에 의한 저서로 국한한다. 그리고 대부분 2차적 자료여서 1차적인 자료인 사료를 사용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II. 주택과 사회공간 특성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의 주택과 사회공간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문헌을 통하여 파악되는 내용을 시대별, 주택계층별로 서술하고, 이를 평면예와 함께 <표 1>과 같이 요약, 정리한다.

1) 조선시대

조선시대의 주택은 목조가구식 단층구조로 온돌과 마루로 이루어졌고, 기후적 특성과 지리적 특성에 적응하여 평면과 재료가 선택되었다. 신분제도로 인하여 계층에 따라 내지와 주택의 규모에 규제를 받았으며, 주택의 규모와 구성은 신분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제력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주남철 1980). 상류, 중류, 서민주택 모두 공통적으로 안대청이 중앙에 오는 경우가 보편적이었고, 사랑대청의 경우는 주택계층에 따라 유무, 규모, 위치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안채의 동구성형식에서는 주택의 지역적 구별이 잘 나타나는데, 호남과 영남남부권은 一자형, 영남북부권은 ㅁ자형, 경기·충청지역은 ㄱ·ㄷ자평면이 나타났다(최 일 1988). 상류주택은 안채, 사랑채, 별채, 사당채, 부속채, 대문채 등 채를 단위로 하여 성별, 계급별 사용공간이 뚜렷이 구분되는 주택구성

이 이루어졌고(조성기, 김일진 1977), 계층간의 특성이 뚜렷이 나타나는 사랑채는 사랑방과 사랑대청의 규모가 커지고 실의 기능분화가 이루어졌으며 누마루나 별채가 존재하였다. 중류주택은 상류주택과 같이 채를 단위로 한 주택구성은 유사하나 주택규모가 작아져 주로 안채, 사랑채, 부속채로 구성되며 사랑채는 사랑방과 수장기능을 겸하는 사랑대청이 있었다(신경주 1988, 최 일 1988). 서민주택은 특히 기후의 영향에 의한 지역성이 평면특성에 두드러졌으며 부엌-안방-대청-건너방의 기본구성요소에서 간(間)의 분화가 나타났다. 그래서 남성공간은 사랑방만으로 구성되었고 이는 안채에 함께 있거나 부속채와 연결되었다.

중, 상류주택은 공간의 성별분리사용과 다목적 사용으로 안채에서는 안방과 안대청이, 사랑채에서는 사랑방과 사랑대청이 사회공간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즉, 안채는 안주인과 가족의 사회공간으로서, 사랑채는 바깥주인과 외부손님간의 사회공간으로 사용되었다. 특히 상류주택은 사랑채가 큰사랑채, 중사랑채, 작은사랑채 등으로 나뉘어져 세대별 사용이 이루어졌다. 서민주택은 안대청의 유무와 개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대청이 없거나 있어도 폐쇄된 경우에는 안방과 사랑방이 사회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으며, 대청이 개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안방과 사랑방 외에 대청이 사회공간으로서 역할하였다.

2) 개화기

개항이후부터 우리의 주택은 부단하게 외래문화와의 접촉을 통하여 그 내용이 증가하고 변화하여 왔으며, 각 계층의 경제적 능력의 차이와 의식체계의 차이에 따라 주택이 각기 다른 모습을 갖는 것이 특징이다(홍형욱 1986). 이 시대의 상류주택은 외래주택양식의 소개로 대개 전통한옥에 양식, 일식을 채용한 소위 절충식 주택으로서 나타났는데, 내부각실은 온돌로 하고 외양은 양식으로 하는 형태가 많이 나타났다. 현관이 도입되어 주택의 집집화 변화에 초기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시멘트, 유리, 콘크리트 등의 건축재가 들어오게 되므로써 한식주택에 새로운 면모를 더해지게 되었다. 중류주택과 서민주택은 전통한옥이 그대로 이어져 왔는데, 특히 중류주택에서

는 신분제도의 붕괴로 가사규모의 제약이 없어지게 되자 전통한옥의 상류주택 규모나 형식을 모방하는 모습으로 나타남으로써, 각종 공간의 수가 많아지고 공간규모가 커져 수장공간이 발달하고 사랑채의 분화현상이 나타났다. 그리고 대부분의 서민주택과 농가 등에서는 전통한옥에 대한 애착 및 생활여력의 부족으로 과거의 한식주택 평면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사회공간의 특성으로, 상류주택에서는 의자나 탁자 등의 입식형태로 꾸며진 접객을 위한 응접실과 서구의 식침분리에 영향을 받아 식사마루가 등장하였고, 재래의 대청이 내외부연결을 담당하던 것에서 독립된 마루방으로서의 변화된 기능을 가지게 되는 등(김철호, 이영주 1986) 사회공간의 기능별 분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나, 중류주택과 서민주택의 경우에는 사회공간의 특성이 조선시대와 변화없이 계속 이어져 왔다.

3) 일제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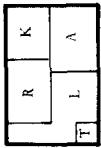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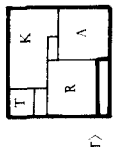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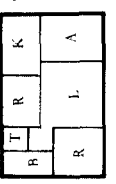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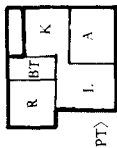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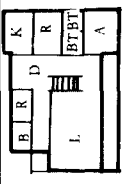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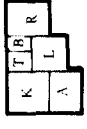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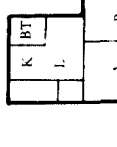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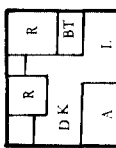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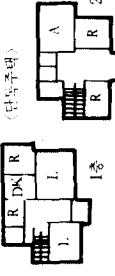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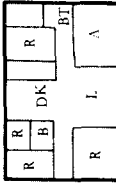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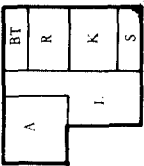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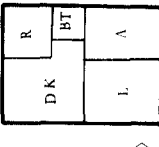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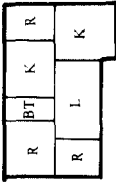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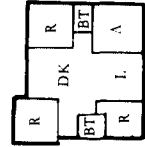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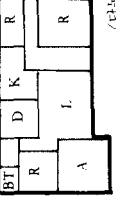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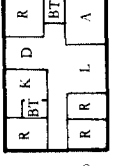
이 시대에서는 근대건축가의 활동과 주택경영회사의 출현, 그리고 생활개선의 논의 및 주택개량 등의 움직임으로 새로운 도시주택유형이 형성되었다. 근대 건축가들의 주택작품으로 나타난 상류주택은 이전의 절충식 주택에서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타나 화장실, 욕실 등이 실내로 도입되었고, 재래의 ㄱ, ㄷ, ㄴ자형 배열의 중정형에서 집중형으로 변화되었으며, 복도로써 각방을 연결하게 하여 각 실의 독립성을 유지시키면서 경제적이고 집약적인 실배치를 이루었다. 중류주택인 개량한옥은 전통 서울지방의 ㄷ자 서민주택평면에 상류주택의 외관을 본딴 형태였는데, 사랑방이 쇠퇴하고 마당은 점차 폐쇄화되어 노동기능에서 통로기능으로 역할이 바뀌었다. 서민주택인 영단주택은 최소한의 공간에 각실이 분화되어 부엌, 욕실이 실내로 도입되고 일본식 개량에 한국식 온돌을 가미한 간략한 평면형태로서 가장 일반적인 평면유형은 10평형이었다(홍승균 1988).

사회공간의 특성으로, 절충식 주택에서 발전되어 나타난 상류주택에서는 대청대신 의자가 설치된 거실이 도입되고 접객을 위한 입식의 응접실을 두어 양식화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전에 대청이나 거실

구분 주택 제종 시대

A : 안방, R : 방, L : 기실/대청, K : 부엌, B : 욕실, T : 변소, BT : 욕실+변소, S : 창고

〈표 1〉 주택과 사회공간의 특성

구분 주택개황 시대	주 택 평 면			주 택 특 성	사회공간 특성
	서 민 주 택	중 류 주 택	상 류 주 택		
1 9 6 0 년 대	<p>〈단독주택〉</p>  <p>〈APT〉</p> 	<p>〈단독주택〉</p>  <p>〈APT〉</p> 	<p>1층</p>  <p>2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류주택은 심의 단일기능화 추구로 심의 수거·면적의 증가, 또한 평면공간 면적확보등으로 주택규모가 커졌고 현대식 외형·난방설비와 본격적인 생활개념이 반영됨. · 중류·서민주택은 대청을 중심으로 영고 10평 전후규모가 일반적임. · 중류 서민아파트는 2실전형이 대부분이며 연도변화추위·난방부리·바닥에 의한 공간부리가 이루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청의 시설화와 화장실욕실의 일대청화 · 현관에서 세입 민초에 안방을 배치함 · 상류주택은 1, D, K, K, K가 시도됨 · 중류·서민주택은 D, K, L, K가 시도되기도 하였으나 재래식 부엌형이 아직도, 안방이 여전한 부엌과 연결, 안방의 면적은 3평 정도로 거실(대청)보다 약간 컸음, 수납을 변경 또는 안방에 따라 설치
1 9 7 0 년 대	<p>〈단독주택〉</p>  <p>〈APT〉</p> 	<p>〈단독주택〉</p>  <p>〈APT〉</p> 	<p>〈단독주택〉</p>  <p>〈AP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K의 일반화 · 안방부엌간의 연계성 증진 · 거실의 기능 독립시도(거실단란 공간으로 기능 정착인원) · 안방에서 사회행위가 주로 이루어짐 · 상류층은 현관 가까이 침대실 따로 마련, 사회공간의 분리가 이루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K의 일반화 · 안방부엌간의 연계성 증진 · 거실의 기능 독립시도(거실단란 공간으로 기능 정착인원) · 안방에서 사회행위가 주로 이루어짐 · 상류층은 현관 가까이 침대실 따로 마련, 사회공간의 분리가 이루어짐
1 9 8 0 년 대	<p>〈단독주택〉</p>  <p>〈APT〉</p> 	<p>〈단독주택〉</p>  <p>〈APT〉</p> 	<p>〈단독주택〉</p>  <p>〈AP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은 평면유형·자재의 고·급대양화 · 2층 평면형의 보편화·공간사용의 증진분화 및 다세대 양상론·사주간의 공간분리 · 심 규모의 중대 부엌·리치·화장실이 내부공간에 정착되고 평면행위가 파도와 미트·거실중심의 침대실과 각 침실화 · 서민주택은 거실 중심의 침대실·부엌과 연계성 강조 · 아파트 평면형의 다양화·자재의 고급화·공간에 도입·중앙난방설비의 정착·보일러의 활용도증가 · 침구도의 증가·2개 욕실의 보편화 · 서민아파트는 연단·가스 개별 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사회공간의 연결 유형 출현 · 가족단위 공간으로 거실의 기능성 확보 · 상류층은 안방공간의 개인침실화 · 서민층은 안방에서 가족단위행위함 · 부엌공간의 협소로 거실·안방에서 식사행위가 이루어짐 · 상류주택은 2욕실 도입·안방공간의 사실화·고부생활관 강화

이 완전히 독립적이지 못하고 각실로의 연결을 담당하는 기능에서 독립된 실로서의 위치가 배치되어 공간의 전용적 역할이 강해지게 되었다(이영주 1986). 중류주택인 개량한옥에서는 유리가 도입되어 대청끝에 미서기문을 달아 대청이 내실화되고 점차 공간의 독립적인 기능을 추구하였다(최성수 1986). 영단주택은 근대적 평면개념이 도입된 것이기는 하나 주택규모의 협소로 대청공간이 사라지게 되어 안방이 사회공간의 기능을 대부분 담당하게 되어 중류 및 상류주택에서 나타나는 사회공간의 독립성 추구 및 기능분화현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4) 해방후부터 1960년까지

해방후부터 1960년까지의 주택특성은 서구의 거실 공간개념의 도입으로 중심주거공간이 기능적으로 분리되기 시작한 것이다. 건축가들의 현상설계안에서도 중앙에 거실이 좌우에 온돌방이 배치되었고, 부엌, 욕실, 변소의 내실화와 북측현관을 두는 등 일반 대중의 주거관에서 볼 때 비약된 점도 없진 않으나 상류, 중류주택에서는 기능적 동선처리와 거실, 부엌 바닥의 동일레벨화 등도 시도되었다(류항륜 1985, 정태일 1988, 김운형 1985). 이 시기에 새로 지어진 10평전후 규모의 중류, 서민주택들은 작은 규모에 비해서는 여러개의 방을 배치한 특징이 있으나 전쟁후 과도기에 급조된 주택들이 대부분으로 채광, 위생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최소한의 기본조건만을 충족시키는 정도로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많았다(신수현 1983). 난방방식은 여전히 온돌구조에 의한 개별식 난방이었고, 거실/대청에는 온돌난방이 되지 않아 겨울철에는 생활실로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사회공간의 특성으로 안방을 비롯한 각실은 모두 온돌구조였고, 거실/대청은 장마루로 축조되었으며, 현관옆이나 침실옆에 설치되어 통로역할을 하였다(신수현 1988). 중류, 서민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규모의 협소함으로 온돌방인 안방이 생활실 겸용으로 평면구성의 제1 요소가 되었다(김운형 1985). 이에 식침분리가 되지 않았고, 안방이 부뚜막 아궁이가 있는 부엌에 접할 뿐 아니라 대청→안방→부엌의 실내동선을 갖는 등의 이유로 안방과 부엌은 하나의 단위로 보는 실배치가 일반적이었다. 또 대청이 없거

나 있더라도 속마루 형식이 많아 이전 시대에 나타나는 과정적 공간개념으로 자연을 받아 들이는 구심적 공간성격은 찾기 어려웠다(임창복 1985).

5) 1960년대

이 시대 단독주택의 특성은 거실중심의 개방적 구성과 침실간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한 폐쇄적 구성이 혼재하는 주거공간의 기능적 분화가 나타난 것이다(김능현 1986, 임창복 1989). 또한 새로운 재료와 공법의 발달로 다양한 재료와 구조를 갖게 되자 주택 내부의 기둥이 제거되어 평면형식이 자유로워졌다. 상류주택은 실의 단일기능화를 추구함에 따라 실의 수, 가구면적의 증가, 생활공간 면적확보 등으로 주택규모가 커졌다. 또한 상류주택에서의 현대식 위생·난방설비 등 주생활양식의 변화는 1970년대 중류, 서민주택 평면구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김철호 1984, 김능현 1986). 중류, 서민주택의 공간배치는 거실/대청을 중심으로 방들이 둘러싼 겹집형태에, 안방을 현관에서 제일 먼쪽에 전면을 향하도록 배치하였고, 대청의 거실화와 화장실, 욕실의 실내정착이 이전 시대에 비해 진행되었다. 또한 부뚜막 아궁이에 의한 취사·난방의 분리로 안방, 부엌의 밀접한 관계가 깨어지고 제한된 단위평면내에서 질적인 변화가 시도되었으나 난방방식은 중앙난방방식을 택한 일부 아파트외에는 여전히 연탄온돌구조의 개별난방방식이 일반적이었다(신수현 1983). 중류아파트는 주침실과 부엌이 붙어서 위치하던 것에서 주침실 옆에 화장실이 위치하기 시작하였고, 서민아파트는 7평 내외규모에 침실, 부엌, 변소를 필수구성요소로 하여 규모가 극소화되었다(정태일 1988).

사회공간특성으로 상류주택은 중류, 서민주택에서 LK, DK가 일시적으로 선택되었다가 재래식 부엌으로 되돌아간 것에 비해 LD가 꾸준히 선택되었는데 이는 중류, 서민주택에서 비입식화된 부엌설비, 유해가스를 유발하는 석탄사용, 식생활개선 등이 없는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LK, DK를 채택한 것에 대해 상류주택에서는 생활의 편리화를 지향하여 부엌을 입식화하였고 공간적으로도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다(류항륜 1985, 임창복 1989). 중류, 서민단독주택은 안방이 부엌과 계속 인접하였고, 안방의 면적

은 3평정도로 대청/거실에 비해 약간 넓은 편이었다(임창복 1989). 대청을 중심으로 하는 실의 분리 배치로 대청은 통로역할과 완충역할, 안방의 계절적 보조역할로서 일상생활적 기능보다는 주택내 개방공간으로서의 상징적 의미가 컸다(이중우 1989). 이는 생활실로서의 대청/거실에 대한 거주자의 인식부족, 불충분한 난방설비, 독립성을 갖기에 너무 협소한 전체주거면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김운형 1985).

6) 1970년대

1970년대는 그동안 지속된 경제성장에 의한 산업화로 토지의 수요가 크게 늘어 지가가 급속히 상승하였고 대도시에서는 지가절감을 위한 토지 이용의 극대화로 고밀도 주택형식인 고층아파트가 많이 건설되어 복도식에서 계단식 아파트로 바뀌었으며 표준주택, 연립주택, 고급맨션, 빌라 등 다양한 주거형식이 출현하였다. 경제성장에 의한 소득의 증가는 주거면적을 증가시켜 1호당 건축면적을 크게 증가하여 완전한 겹집화가 이루어지며 서구화에 따른 주의식과 주거양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아파트는 이전에 없던 다용도실이 출현하고 발코니의 활용도가 증가하였다. 상류주택에서는 욕실이 두개 있는 평면형이 등장하였으며, 중류, 상류주택은 생활공간의 수평, 수직 분화가 일어나(이중우 1984), 창고, 보일러실과 각 층을 연결하는 계단 복도 등이 포함되게 되며 미니 2층형이 생기면서 지하 공간을 임차공간으로 구성하였다(배동석 1989). 입식화 및 가사난방설비 등의 발달로 주거생활이 실내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가사노동이 절감되고 생활방식도 입식화 되어 DK형이 정착되어 식침분리가 일어났다. 또한 이전에 현관에 붙어 있던 화장실도 생활공간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생활의 편리를 도모하게 되었으며 이는 대개 침실과 침실사이에 위치하는 배치로 일반화되었다. 서민주택은 거실중심의 배치를 하고 있었으며, 1960년대에 비해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공간의 특성으로는 부엌이 입식화되면서 규모가 커지고 개방적 공간으로 되었으며, 연결되기도 하였다. 상류주택에서는 접대실, 거실, 식당, 서재 등으로 사회공간의 분화가 일어났으며 접대실은 주출

입구 근처에 배치되므로써 가족의 생활공간과 접객공간을 분리시켰다. 중류주택은 1960년대 일반적이었던 거실로 진입하는 주택평면이 1970년대에 이르러 현관이 생기면서 거실과 마당과의 연관성이 약해져 거실의 기능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현관에서부터 타공간까지 연결되는 통로에 위치하므로써 독립적 기능을 갖도록 배치되지는 못하였다. 중류, 서민주택의 거실은 바닥마감재가 마루로 되어 있고 난방방식도 라지에이터에 의존하고 있었으므로, 소파를 놓아 입식화하였으나 실제로는 사용이 덜하여 공간과 생활의 대응이 불일치하였다.

7) 1980년대

인구의 자연증가와 핵가족화에 따른 가구수의 급증, 도시화에 의한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으로 도시의 주택부족율이 심화되어 초고층 아파트가 출현하는 것이 1980년대의 특징중 하나이었다. 1970년대의 주택정책이 주로 양적 공급에만 치중하였다면 1980년대에는 질적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어 건축자재의 고급화와 다양화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주문주택, 옵션제 등도 등장하였으며, 같은 면적 규모내의 아파트라 할지라도 평면형이 다양해졌고, 계단식으로 된 스카이라인의 변화, 동거형 아파트의 등장, 저층과 고층의 혼합배치 등 다양한 주택형태를 이루고 있었으며 주택시설수준이 고급화되었다. 1970년대 상류주택의 특성인 2층구조와 2개욕실의 평면형이 중류주택까지 파급되어 나타났다. 1985년에 다세대주택법안이 법제화되면서, 1970년대의 미니 2층식 구조의 지하임차공간이 없어지고 외부계단 또는 출입구의 분리 등의 방법으로 2층으로 분리된 단독세대의 임차 공간이 양성화되었다(임창복 1989). 서민주택은 1970년대의 안방이 돌출된 'ㄱ'자형 평면이 유지되고 거실이 주 통로공간으로 가운데 위치하는 형태를 나타내었다. 아파트의 경우는 중앙공급 난방방식이 증가하였으며, 서민주택에서는 연탄보일러식이 주종이었으나 가스나 기름 보일러로 바뀌는 추세도 나타났다.

사회공간의 특성으로 거실의 기능이 가족단란의 장소로 정착되어지며, 서재나 응접실 등이 남자손님의 접대나 남자가구주의 기거장소로 이용되어져 전

통한옥에서의 사랑방개념과 맥이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거실·식당·부엌의 사회공간이 주택계층에 따라 다양하게 통합, 연결되어 나타났다.

III. 사회공간의 물리적 특성 변화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안방과 거실/대청을 중심으로 한 사회공간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수집된 각 시대의 평면들을 대상으로 부엌-거실/대청의 실구성 형식, 거실/대청-부엌의 연결형태 등을 기준으로 하여 주택계층 및 주택유형별로 분석하였다. 가장 사례수가 많은 특성들을 뽑아 각 시대의 물리적 특성의 대표성으로 간주하여 이를 <표 2>와 같이 정리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서술은 다음과 같다.

1. 실구성 형식

부엌과 거실/대청의 조합형태로써 실구성 형식의 변화를 파악해 보면, 전통한옥은 대부분 부엌+대청+사랑방 또는 중류주택과 상류주택의 경우 사랑채의 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주택계층에 따라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전통한옥의 실구성은 상류주택의 경우 개화기와 일제시대에 식사공간이 더해지고, 사랑방 또는 사랑채가 응접실 개념으로 변하여 조합된 형태로서 나타나서 현재까지 계속 이어져 왔다. 또한 1970년대에 와서부터 아파트에서는 DK 또는 LD의 통합된 형태가 나타났다. 이와 비교하여 중류주택은 전통한옥의 사랑방(채)이 쇠퇴해 지면서 점차 소멸되어 1960년대 까지 부엌+거실/대청으로 이루어진 실구성 형식이 계속 이어져 왔으며, 최근에 와서야 아파트에서 식사공간이 더해진 실구성 형식을 보였다.

2. 거실/대청의 위치

거실 또는 대청의 주택내 위치는 중앙형과 편심형이 현재까지 고루 나타나고 있다. 서민주택과 중류주택에 비해 상류주택의 경우에 편심형이 일찍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주택규모가 크고 서구의 근대

적인 평면개념을 도입하므로써, 기존의 대청이 독립된 공간이 되지 못하고 각 실 연결을 담당했던 것에서 점차 거실/대청의 독립성을 추구하려는 의도에서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개화기 상류주택에서 부터 나타난 거실/대청의 편심형이 현재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것과 함께 대청을 중심으로 한 전통한옥의 중앙형 역시 현대주택에서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3. 안방 위치

전통한옥에서 안방은, 난방과 취사의 분리가 어렵고 주택배치에 음양오행설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대부분 부엌의 측면이나 후면에 인접하여 위치하였다. 그러나, 주택이 겹집화되고 안방이 갖는 생활실로서의 역할이 커져감에 따라 안방은 부엌의 전면에 위치하게 되는데 이는 중류주택이나 서민주택보다 상류주택에서 더 빨리 나타났음을 볼 수 있다. 또한 현대에 올수록 설비기술이 발달되어 난방과 취사가 각각 독립되므로써 안방의 위치가 부엌과 인접해야 한다는 제약을 받지 않아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안방이 점차 개인공간화 되어가는 경향에 미치는 하나의 영향요인으로 볼 수 있다.

4. 안방-거실/대청의 규모비교

안방과 거실/대청의 규모는 시대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각 시대에서 주택계층별로는 차이가 났다. 중류주택과 서민주택은 전 시대에 걸쳐 안방과 거실/대청의 규모가 거의 같거나 거실/대청이 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민주택의 경우 대체로 안방이 거실/대청보다 규모가 크게 나타났다. 이처럼 각 주택계층이 전통한옥에서부터 현대주택에 이르기까지 안방과 거실/대청의 규모차가 변하지 않은 것은 전 시대에 걸쳐 주택계층에 따라 주택규모의 차이가 나며 주택규모가 클수록 거실/대청의 규모가 비교적 크나, 주택규모가 작을수록 안방이 거실/대청보다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중류와 서민주택의 경우 전통한옥에서 안방보다 대청이 크게 나타난 것과 현대주택에서 안방보다 거실이 크

〈표 2〉 사회공간의 물리적 특성

공간 구분 형태 특성	시대 주거 양식/유형	시대						
		조선후기	개화기	일제시대	해방후 - 1960년까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실 내 공 간 구 분 형 식	서민 주택	단	$K+L+L', K+L+L''$	$K+L+L'$	K	K, K+L	K, K+L	K+L
		아				K	K, K+L	LDK, DK+L
	중류 주택	단	$K+L+L''$	$K+L+L''$	K+L	K+L	K+L, DK+L	LDK, DK+L
		아				K+L	K+LD, DK+L	DK+L, K+LD
	상류 주택	단	$K+L+L''$	$K+L+L', K+L+D+L'$	$K+L+D+L'$	$K+LD$	$K+L+D+L', K+L+D$	$K+L+D+L'$
		아					$K+LD, K+L+D+L'$	$K+LD, K+LD$
거 주 단 위 구 분 형 식	서민 주택	단	중앙	중앙	없음	편심, 없음	편심, 없음	편심
		아				없음	편심	편심
	중류 주택	단	중앙	중앙	중앙	중앙	중앙	중앙, 편심
		아				편심	중앙, 편심	중앙
	상류 주택	단	중앙	편심, 중앙	중앙, 편심	편심	편심, 중앙	중앙, 편심
		아					중앙	중앙
안 내 공 간 구 분 형 식	서민 주택	단	측면인접, 후면인접	후면인접	측면인접, 후면인접	측면인접, 전면인접	측면인접, 전면인접	전면인접
		아				전면인접	전면인접, 대각선분리	전면인접, 대각선분리
	중류 주택	단	측면인접, 후면인접	후면인접	후면인접	전면인접	전면인접	대각선분리
		아				전면인접	전면인접, 대각선분리	대각선분리
	상류 주택	단	측면인접, 후면인접	전면인접	측면인접, 전면인접	전면인접, 분리	전면분리	전면분리, 대각선분리
		아					대각선 분리	대각선 분리
안 내 공 간 구 분 형 식	서민 주택	단	안방=대청	안방>대청		안방>거실	안방>거실	안방>거실
		아					안방>거실	안방>거실
	중류 주택	단	안방>대청, 안방=대청	안방>대청	안방=대청, 안방>대청	안방>거실, 안방=거실	안방>거실, 안방=거실	안방>거실
		아				안방>거실	안방=거실	안방>거실
	상류 주택	단	안방=대청, 안방>대청	안방>대청	안방>대청, 안방=대청	안방>거실	안방=거실, 안방>거실	안방>거실
		아					안방>거실	안방>거실
연 결 구 분 형 식	서민 주택	단						
		아						
	중류 주택	단						
		아						
	상류 주택	단						
		아						

주 : K : 부엌, L : 거실(대청), L' : 사랑방 응접실, L'' : 사랑채, D : 식당,
 ⊙ : 부엌, □ : 거실(대청), ○ : 안방, ㉠ : 식당, ㉡ : DK, □ : 복도, 홀
 ~ : 실내동선, 단 : 단독주택, 아 : 아파트

게 나타난 것은 그 규모차이의 의미가 조금 다른데, 전통한옥에서의 대청은 중심사회공간인 안방의 보완적 공간으로서 제사나 혼례등의 큰 행사를 수행하므로 그 규모에 큰 비중이 주어진 반면, 현대주택에서는 안방이 개인공간화되고 거실이 중심사회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실규모가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5. 연결형태

전통한옥은 안방이 중심에 놓여 대청과 부엌이 각각 양옆으로 연결되거나 그자로 꺾여서 놓인 형태이다. 50년대에는 대청이나 거실이 중심에 놓여 부엌과 안방이 각각 연결되는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어지며, 최근에 와서 서민주택과 중류주택에서는 DK가 중심에 놓여 거실과 안방이 각각 연결되는 형태도 나타났다. 또한 대청에서 부엌으로의 실내동선이 개화기 상류주택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여 일제시대 중류주택에까지 보급되어 계속 이어져 왔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부엌이 내실화되고 현대에 와서 DK화되므로써, 그리고 안방이 대청과 부엌사이에 놓인 연결형태에서 점차 거실이나 DK가 중심이 되어 공간이 연결되므로써, 안방이 개인공간화 되어가고 거실이나 식당이 중심사회공간으로 되어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IV. 사회공간의 실기능 변화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의 주택내 사회공간의 실기능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문헌에서 나타난 생활형태 변화²⁾로써 실기능의 변화추이를 추적하고, 이를 사회공간별로 주택계층과 주택유형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각 공간별 실기능의 변화추이는 <그림 1>, <그림 2>, <그림 3>, <그림 4>와 같다.

1) 안방

안방의 실기능 변화추이는 <그림 1>과 같다. 조선시대에 안주인의 침실이며 가족실, 식사실, 접대실의 주된 기능과 욕실의 기능으로도 사용된 안방은 다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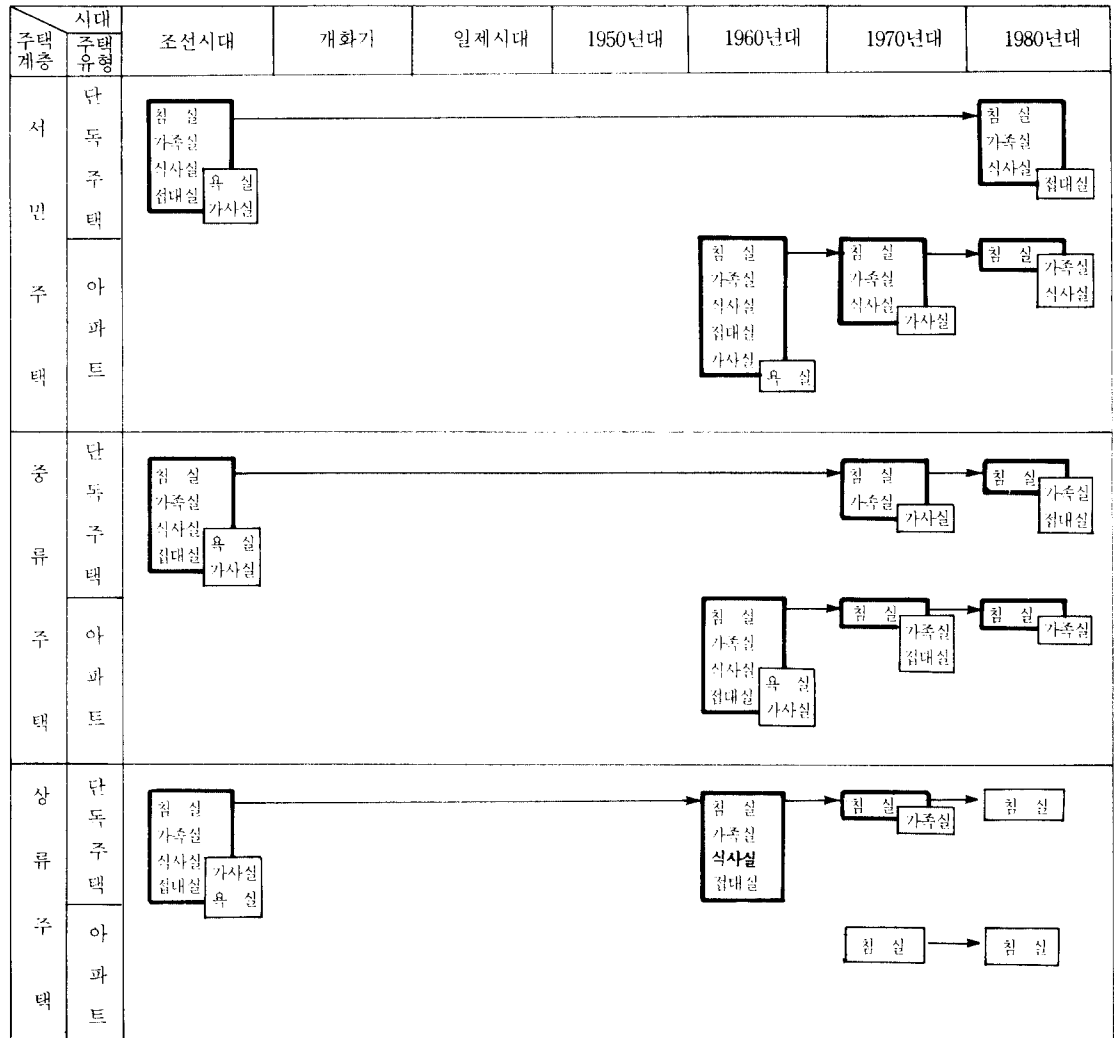
적 기능공간에서 점차 사회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축소되어 부부침실로 개인공간화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개인공간화의 경향은 주택계층에 따라 그 시기에 차이가 나타나, 상류주택은 1960년대 부터 안방의 기능이 분리되어 나오기 시작하여 1970년대에 부부침실로 정착되었으며 중류주택은 1970년대에 분리되기 시작하여 1980년대에 가족실과 접대실을 겸하는 부부침실로 변화하였다. 서민주택은 현재까지 전통적인 안방의 역할이 지속되고 있으며 점차 사회공간으로서의 기능이 거실로 옮겨가고 있었으나 공간의 협소로 인하여 다른 주택계층에 비하여 개인공간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택유형에 따라 각 주택계층에서 개인공간화의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단독주택보다 아파트에서 더 빠르게(약 10여년 정도) 안방의 부부침실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서민주택일수록, 단독주택일수록 안방의 사회공간으로서의 역할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가족실의 기능이 접대실의 기능보다 더 늦게까지 더 많이 남아있다.

2) 거실/대청

거실/대청의 실기능 변화추이는 <그림 2>와 같다. 조선시대 주택에서의 대청은 반(半)내부공간으로 통로의 역할과 함께 안방의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다목적 공간으로 이용되었다. 개화기 이후 사랑방과 사랑대청이 없어지면서 대청이 내실화되었고 그 역할이 커졌다. 대청은 상류주택에서는 개화기 이후부터, 중류주택에서는 1960년대에, 서민주택에서는 1970년대 이후에 거실공간으로 바뀌어 갔다. 안방이 개인공간화되면서 사회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안방에서 거실로 옮겨가 거실은 서민, 중류주택에서는 가족실과 접대실로, 상류주택은 가족실로서 주로 사용되었다. 거실은 상류주택보다 서민, 중류주택에서, 단독주택보다 아파트에서 가족실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정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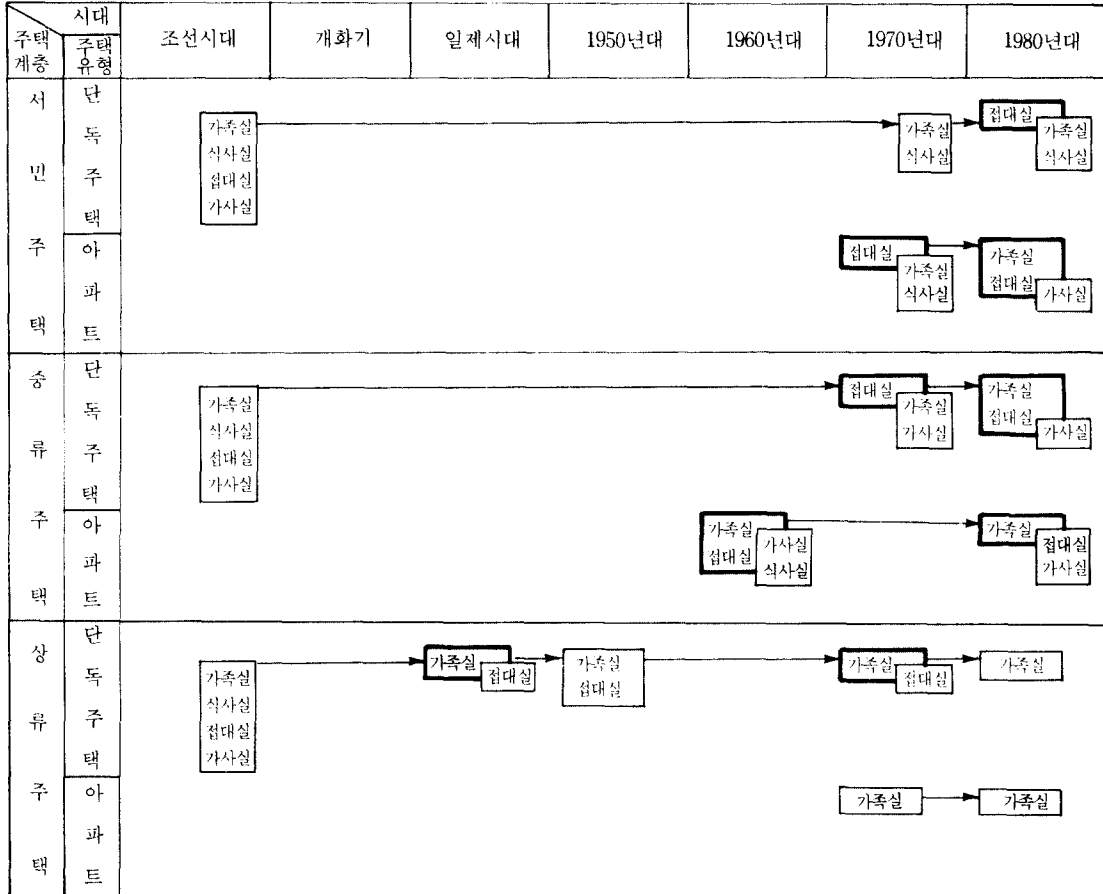
3) 부엌

부엌의 실기능 변화추이는 <그림 3>과 같다. 전통적으로 부엌은 취사기능을 수행하는 작업실로서 역할하였으나 상류주택은 개화기부터 식당이 생겨 부



〈그림 1〉 안방의 실기능추이

주기능 —
부기능 —



〈그림 2〉 거실/대청의 실기능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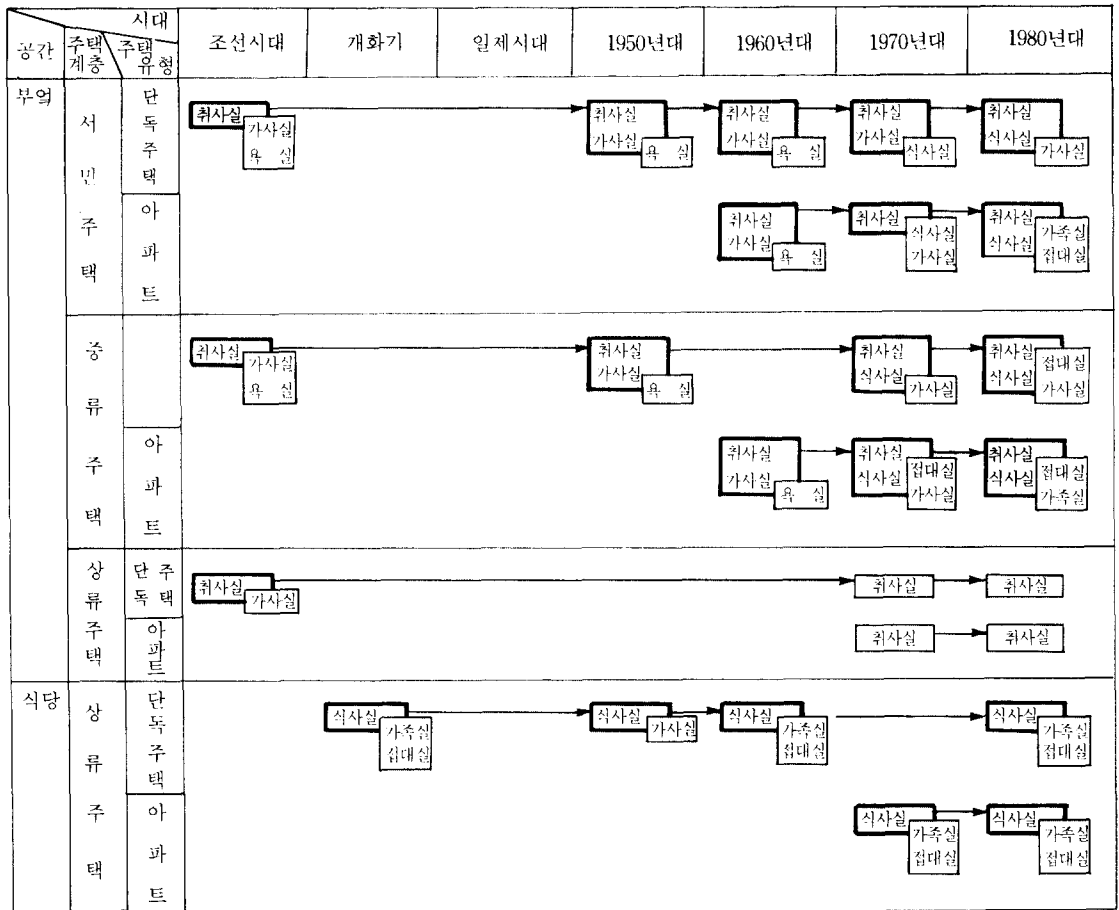
주기능 —
부기능 —

엷은 취사실로 식당은 식사실로서의 역할을 하게되면서 가족실과 접대실의 기능도 함께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중류, 서민주택은 1970년대, 1980년대에 각각 부엌이 DK형식으로 정착이 이루어지면서 식사실과 역할을 갖게 되었다. 부엌이 식사실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가족실과 접대실로서도 이용하게 되었는데 서민주택에서는 공간이 협소하여 그 역할이 미미하였다. 부엌은 단순취사공간에서 사회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갖는 공간으로 변화하여 주택내에서 변화가 가장 크고 계층간의 차이가 비교적 많이 나타나는 공간이다. 안방이 개인공간화되면서 거실

이 안방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거실의 기능의 일부는 부엌/식당공간의 나눠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응접실/서재

응접실/서재의 실기능 변화추이는 <그림 4>와 같다. 조선시대에는 주택내 공간의 성별분리사용으로 남성들의 공간으로 존재하였던 사랑방과 사랑대청은 일상가거실의 역할과 더불어 외부손님을 접대하는 기능을 하였던 공간으로 안방과 대비되는 공간이었다. 서민주택은 사랑방이, 중류주택이상은 사랑방과



〈그림 3〉 부엌/식당의 실기능추이

주기능 —
부기능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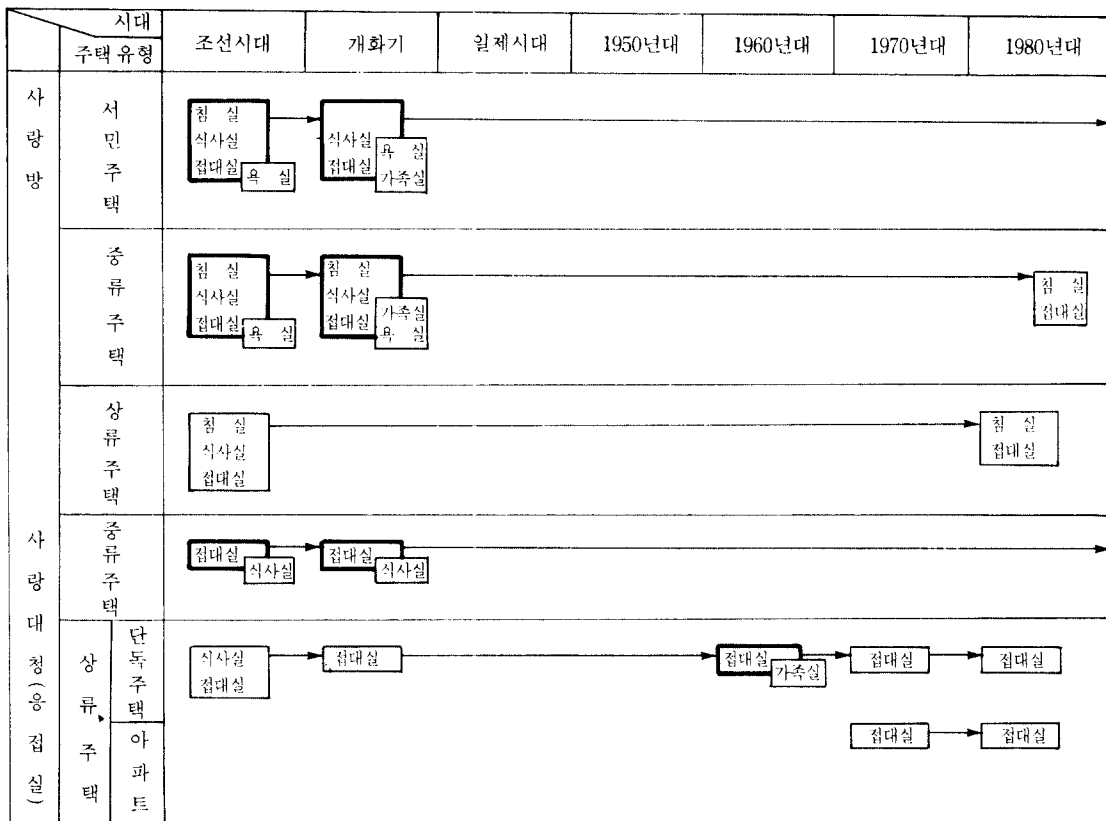
사랑대청이 있어 그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주택규모에 따라 사랑채의 규모에 큰 차이가 있었다. 개화기 이후 공간의 성별사용이 사라지면서 주택내에 남성공간의 개념은 거의 없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상류주택에서 가족실로 이용되는 거실과 별도의 접객공간인 응접실의 형태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선시대의 사랑방/사랑대청이 외부손님을 접대하는 공간이었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최근에 들어 주택규모에 비교적 제한이 적은 중·상류주택에서 핵가족의 추세로 인해 가족수가 줄어들면서 확보된 여분의 방을 서재형태로 하여 침실 및 접대실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첫째,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주택과 사회공간의 특성은 그 시대의 정치·경제·기술,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 거주자의 가족형태환경 등이 변화함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즉 1960년을 전후한 급속한 도시화, 근대화 등의 사회변화가 주택과 사회공간의 특성변화에 큰 영향을 주었고, 또한 각 시대의 주택과 사회공간특성은 다음 시대 혹은 다른 계층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와 새로운 형태로 변화·발전되는 경우가 혼재되어 나타난다.

둘째, 실구성 형식, 거실/대청의 위치, 안방위치, 안방-거실/대청의 규모비교, 연결형태 등을 기준으로 본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사회공간의 물리적 특성



〈그림 4〉 응접실, 서재/사랑방, 사랑대청의 실기능추이

주기능 ———
부기능 ———

변화는 현대로 올수록 실분화 정도가 크고, 거실/대청은 주택규모의 증가에 의해, 안방은 취사·난방의 분리와 연료변화로 위치가 자유로워진다. 또한 거실의 규모가 안방의 규모보다 점차 커지고 사회공간의 연결형태는 통합·분화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상류주택일수록, 아파트일수록 보다 급속한 변화가 나타난다.

세세,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사회공간의 실기능 변화추이를 공간별로 볼 때, 안방의 경우 다목적 공간에서 점차 사회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축소되면서 부부침실로 개인공간화 된다. 거실/대청은 외부공간으로부터 안방 또는 각방으로의 완충적 역할과 다목적 기능공간으로 이용되다가 현대로 오면서 접대실, 가족실 역할이 더 커지고 있다. 또한 부엌은 취사실 기능만 갖는 작업실로서의 역할을 하다가 DK가 도입되면서 식사실기능이 생겼고, 이후 식당이 분화되면서 식당에서의 가족실기능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즉, 환경과의 긴밀한 관계속에서 한국주택내 사회공간은 변화되어 오고 있다. 과거에 안방중심의 가족생활과 사랑방중심의 남성사회공간이 점점 거실과 식당, 부엌 중심으로 사회공간이 옮겨가는 추세를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안방은 점점 부부중심의 개인공간화 될 것이며, 서민주택에서도 공간만 허락된다면 거실을 사회공간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되어야 할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 본 연구대상인 사회공간 뿐아니라 개인공간, 생리위생공간, 작업공간 등 다른 생활공간의 변천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며, 이 모든 생활공간변천 전체를 통합·정리하는 연구도 있어야 한다고 본다.

參考文獻

- 1) 강봉진(1971). 해방이후 우리주택의 변천. 건축사.
- 2) 강선중(1984). 한국전통 마을의 공간구성방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대학원.
- 3) 곽용재(1991). 한국 근대 도시주택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4) 계선자(1978). 거실공간의 활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5) 김광언(1988). 한국주거민속지. 민음사.
- 6) 김능현(1986). 70년대 이후 서울시 중산층 단독주택 평면구성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 7) 김선재(1987). 한국 근대 도시주택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8) 김운형(1985). 절충식 주택의 평면구성 변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9) 김정수(1983). 개항이후 사회변동요인이 주택양식 및 실내구성에 미친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10) 김정식(1972). 한국주거생활의 특성과 서민주택. 건축, 16(49).
- 11) 김종인(1972). 주의식에서 본 생활공간계획. 건축, 16(45), 16(46).
- 12) 김종인(1990). 마루·대청의 의미와 변용, 주거학회지, 1.
- 13) 김철호(1984). 전통주거공간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14) 남호현(1987). 한국 전통주거의 신성공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15) 류항륜(1985). 한국 중산층주택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16) 류희옥(1984). 한국주거에 관한 연구-사회·문화속에서 본 가족과 주거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17) 문홍길(1982). 개화기이후 한국전래 주거건축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18) 박경난(1989). 농촌주택과 마을에서의 생활의 변화에 관한 사례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19) 박경옥(1988). 농촌 개량주택의 평면구성에 관한 연구(2).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20) 박길용(1990). 우리나라 아파트먼트의 단위 평면의 전형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6(2).
- 21) 박선희(1991). 조선시대 반가의 주생활과 공간사용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22) 박성혜(1986). 공영주택 평면구성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서울시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 23) 박홍근(1988). 조선후기 상류주거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대학원.
- 24) 배동석(1989). 한국 아파트 평면의 유형적 변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25) 백영흠·정명섭(1990). 조선시대 상류주택의 주생활 공간이용에 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1.
- 26) 신경주(1987). 주거학. 수학사.
- 27) 신영훈(1983). 한국의 살림집. 열화당.
- 28) 신범식(1982). 아파트 내부공간과 거주자의 생활행태. 주택 43.
- 29) 신수현(1983). 1945년 이후 서울지방 일반주택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30) 우창훈(1989). 한국 개화기 건축의 특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31) 윤복자(1990). 한국 주거형태 변천과정에서 본 주거학의 생태학적 개념정립—1부 부열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3).
- 32) 윤복자·최형선(1989). 한국주택의 생리위생공간의 변천과 전망. 생활과학논집, 3.
- 33) 윤장섭(1985). 주거학. 교문사.
- 34) 이경희(1987). 우리나라 주거 수준의 실태 분석. 대한건축학회지 31(4).
- 35) 이명기(1982). 이조상류주택소고. 건축문화.
- 36) 이병담(1988). 우리나라 민간 건설 부문의 고층 아파트의 변화. 플러스, 7.
- 37) 이병욱(1989). 도시주거 주생활공간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38) 이영주(1986). 개화기 이후 한국 재래주택의 변화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39) 이종만(1984). 조선시대 전통상류주택의 공간비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40) 이종우(1989). 체·용사상에서 본 주거공간의 변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41) 이종우·이해성(1988). 주생활 반응에 의한 주생활 변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4(4).
- 42) 임창복(1989). 한국 도시단독주택의 유형적 지속성과 변용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43) 전한중·박용환(1987). 집합주택에 있어서 life-cycle에 따른 거주자들의 주생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3(3).
- 44) 조계순(1986). 조선조 상류주택 마루의 공간론 연구.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 45) 조성기(1985). 한국 남부지방의 민가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 46) 조성기(1980). 한국민가연구서설. 건축학회논문집, 24.
- 47) 조성기(1991). 한국 '중부형' 민가에 관한 연구. 건축학회논문집, 7(3).
- 48) 조성기·김일진(1977). 주거학. 동명사.
- 49) 조성희(1988). 주택유형에 따른 주공간 사용행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50) 조영무(1977). 가족생활에 대한 사회학적 요구들과 주택적합용어들의 개념(1). 건축사, 101.
- 51) ———(1977). 가족생활에 대한 주택의 사회학적 및 적합요구들(2, 3). 건축사, 102, 103.
- 52) ———(1977). 가족생활에 대한 주택의 사회학적 및 적합요구 해결책들에 대한 고려. 건축사, 105.
- 53) 조용훈(1984). 한국도시주택의 변천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54) 주남철(1986). 한국주택건축. 일지사.
- 55) 최성수(1986). 개항이후 주택의 변화구조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대학원.
- 56) 최 일(1988). 조선 중기이후 남부지방 중상류주거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57) 최정선(1976). 한국의 건축구조가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 58) 한필원(1987). 농촌지역 농가 주택의 이용패턴 변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59) 홍승균(1988). 개항이후 한국재래 주거건축변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60) 홍형옥(1975). 한국인의 생활의식이 전통적 한국 주거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61) 홍형옥(1986). 한국인의 주거조정 및 적응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